

意志의 齒科人 29 金學聖先生님



錦雲 金學聖先生은 서울대 歯大 第3回 出身으로 現在 忠北道齒科醫師會 會長으로 계시다.

忠北 槐山出生인 意志의 齒科人 金學聖先生은 清州에서만 開業30년을 맞았다. 30年間 開業하는 가운데 總務理事 10年과 會長 12년이라는 前無後無한 記錄을 남겨 놓았다. 22년이란 긴 歲月을 忠北道會의 發展에 寄與해온 그의 앞에는 다만 榮光만이 있을 것이다.

清州로 타리클럽에 會員으로 入會하면서 奉仕하는 團體에 會員의 資格은 그 모임에서 내리는 命令에 服從해야 한다는 것이 그 持論이다. 그래서 15年間을 每週모임에 한번도 거론적이 없다.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忠北 會長을 12年間歷任 해오면서 健齒老人 兒童에 對한 表彰 即 6.9行使, 無療診療, 口腔啓蒙等 普編의이기는 하지만 热心히 遂行해왔다. 심지어 농촌일손 돋기도 年例行使化했다.

姊妹部落도 가지고 있다.

意志의 齒科人 金學聖先生은 일도 많이 했지만 趣味도 여러 가지다.

藏書가 3千餘卷이나 된다. 藏書가 趣味할수는 없지만 稀貴古書籍을 상당히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寫眞에도 趣味가 있어 그가 가지고 있는 寫眞帖이 무려 20餘卷, 또한 「백한」이라는 貴한 새를 包含 近20種의 鳥類를 기르고 있다.

忠北道會員이면 누구나 會員牌가 놓여 있다. 會員間に 友誼增進과 協同團結의 表象일 것이다.

忠北道會發展에 22년이란 長久한 歲月을 몸바쳐온 意志의 齒科人 金學聖先生에게 삼가 敬意를 表한다.

(關聯記事 617面參照)

← 사진 ①②③④ :

6選會長인 金學聖先生이 회기를 說明하고 있는 場面, 그리고 會員牌이다. 자매부락에는 사랑의 鐘이 설치됐고, 로타리클럽에서도 남다른 活動을 했다.



①

②

③

④

東盛齒科技工所

代表 趙煥東

서울 종로구 낙원동 236

☎ (73) 0474 · (72) 9712